

커리어디자인 5주차 과제

진로, 취업에 관한 현재 준비 상황

201911019 최현민

현재 저의 목표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IT 대기업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 또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군 장교입니다. 두 목표 중에 어떤 분야가 저에게 더 맞을지 고민하고 있어서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했고 현재는 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면서 제가 더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컴퓨터와 코딩이 좋아서 컴퓨터과학과에 입학했고 전공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변 친구들과 함께 팀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프로그래밍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프로그래밍 중에도 화면과 디자인보다 데이터베이스와 서버를 다루는 일과 빅데이터에 더 큰 흥미를 느껴 백엔드 개발자와 빅데이터 엔지니어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언어를 배우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술들을 공부했고 목표하는 직무의 실제적인 업무를 체험하고 싶어서 이번 겨울방학때 빅데이터 전문기업에서 2달동안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인턴 생활동안 실무에서 사용되는 기술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기술과 다르며 제 실력의 부족함을 느껴 업무 시간외에도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며 2달동안 실력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취감을 크게 느껴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큰 흥미를 느껴 저에게 딱 맞는 진로를 찾은 거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대학생활동안은 제 관심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하고 준비를 열심히 할 계획이며 기회가 된다면 이번 여름방학때는 IT 대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해보고 싶습니다.

제 두번째 목표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군 장교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공군에서 군인으로 30년 가까이 근무하시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보며 군인이라는 직업을 동경해왔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군인이 되고 싶어서 작년에 학사장교 시험을 통해 공군 장교로 선발이 되어 졸업 후 3년동안 근무할 계획입니다. 저는 1년뒤에 졸업 후 리더십 있는 소대장이 되어 소대를 잘 이끌고 제 전공 분야를 살려 IT나 통신 특기에서 일하며 나라에 보탬이 되는 공군 장교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프로그래머와 군인중에 제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했지만 두분야에서 일을 하며 저에게 더 어울리는 분야를 찾고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일할 계획이며 컴퓨터와 코딩 공부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제 목표와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